군종주보

2026년 8월 23일(제1314호) 연중 제21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군종신부로 임관하고 만포대 성당으로 온 시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나 관사 주변에서 함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끌레지 셔츠를 입지 않고 만나도 저를 알아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1년 전보다 많아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당을 다니지 않아도 함대 사람들이 제가 군종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는 인성교육, 훈련, 위문 활동, 체육 시간 등 여러 가지 활동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원 혹은 정체성, ‘저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는 바탕 안에는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 시대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함께 걸어온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짧은 순간의 만남으로 상대방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친교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미사와 기도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께 봉헌하는 성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주님의 몸인 성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모신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강진욱(세례지 요한) 신부
만포대(해군 제2함대사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22,19-23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 독 서	로마 11,33-3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 음	마태 16,13-20
영 성 체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논산 훈련소에서 이러한 군종사목의 실태를 직접 체험한 조 신부는, 사회에서 어렵게 영세시켜 놓은 신자들이 군에 입대하여 냉담자가 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군종신부로 입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노기남 주교와 안달원 신부에게 간청하여 때마침 실시된 제12기 군종장교 모집(모집 인원 50명)에 응시하여 목사 49명과 함께 합격하였다.

그 후 입대 통지서가 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며 서울에 온 조 신부는 목사들은 이미 5일 전에 입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노 주교와 안 신부가 목사들 틈에서 겪게 될 조 신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후에 여러 신부들과 함께 입대시키려고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군 사목에 정열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교회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단신으로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로 가서 5일이나 늦게 군종 제12기생 훈련에 합류하였다.

훈련을 마친 후 조 신부는 군종신부로는 처음이면서 가장 낮은 계급인 소위로 임관하였다. 임관 후 그는 자진하여 논산 제2훈련소로 부임하여 군 사목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다가 안달원 신부가 강제로 예편당하자 1961년 8월 22일부로 육군본부 군종감실로 전보되었다. 육군본부 군종감실 행정실 서무장교로 보직받은 육군 중위 조성옥 신부의 두 어깨에는 당시 천주교 군 사목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당시 육군의 군종신부는 두 사람뿐이었다. 조 신부 외에 다른 한 사람은 1959년 10월 21일 군종 제13기로 입대한 김병기 신부였다. 김 신부는 제5군단 군종신부로 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를 비롯한 재경 지역의 여러 부대들은 자연히 조 신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천주교 육군 군종대표신부를 겸하게 되었으니 그의 임무는 실로 막중한 것이었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여기요

여기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사랑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좀 조용히 해줘요.

여기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사랑이 있다고요.

이제 그만 외치고,
사랑을 하면 어떨지요.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종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가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종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청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화이야기 천상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성인

쥐세페 드 파브리스(1790-1860), 1840년경 제작
대리석, 높이 약 5.55m / 바티칸 광장, 로마

본 작품은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사도 베드로를 근엄하고 품위 있게 표현하였다.

베드로 성인은 초기 교회를 이끈 첫 지도자, 즉 '첫 교황'이며,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인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본 조각상은 높이 5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영혼을 관통하는 듯하면서도 인자한 눈빛의 베드로 성인을 묘사하고 있다.

이 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인이 두 손에 들고 있는 상징물이다.

오른손에는 전통적인 '천상의 열쇠'를, 왼손에는 라틴어로 "ET TIBI DABO CLAVES REGNI CAELORUM"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문장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즉, 이를 통해 베드로 성인이 단순히 '열쇠'라는 상징적인 물품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권한을 직접 약속받은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여 성인이 권위를 함께 위임받은 존재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베드로 성인과 현존하는 교황님을 통해 교회의 사도적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1주일: 청동세라핌 고을 신부

◆ **교구장 동정**

- **공군중앙(항공안전단)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23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8월 25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8월 26일(수) 11:00, CBCK
- **가톨릭원목자 기초교육과정 파견미사**
  때·곳: 8월 29일(토) 11:00, 성의회관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혼인성사의 해"